

신증후군 환자 어머니의 교육요구와 간호사가 인지한 교육활동의 중요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 미 혜** · 정 연***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증후군은 신장내 신사구체 기저막의 단백질에 대한 투과성의 항진으로 심한 단백뇨가 초래되어 그 결과 저 단백혈증, 고지혈증 그리고 전신부종을 특징으로 하며, 신증후군의 빈도 및 조직학적 분류는 각 지역의 특성, 인종,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난다(Glasscock et al., 1981). 특히 소아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특발성 신증후군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율이 80-9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Coggins, 1981). 그러나 완전 관해가 일어난 후 스테로이드를 감량하거나 중단할 시, 재발율이 성인의 경우 25%, 소아의 경우 39-55%에 이르고 있어(김영수 등, 1993)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증후군은 진단을 받은 뒤에도 치료나 검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방문을 해야 되며, 잦은 감염과 재발로 다시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환자 간호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되고, 자신의 일과 생활을 전적으로 환아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리듬을 깨트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신체적인 불편감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수반된다(Lily, 1990). 그중 신증후

군 환아를 주로 돌보는 어머니는 일차적인 간호제공자의 역할 뿐 아니라 가사활동, 생계유지, 육아활동, 남편과의 관계유지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아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어머니 자신의 대인관계가 감소되어 사회적인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King & Gregor, 1985).

오늘날 임상에서 보면 간호 대상자에 대한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서 인식되고 있다(Williams et al., 1993; Davis & Grant, 1994). 따라서 만성질환의 하나인 신증후군 환아에 대한 올바른 가족 이해와 적절한 간호중재에 대한 인식은 신증후군 환아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가족 기능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들 가족 구성원 특히 그들을 주로 돌보는 환자 어머니에 대한 간호중재가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증후군 환아를 주로 돌보는 어머니의 교육요구는 무엇이며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의 중요도는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신증후군 환자 어머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 이 논문은 1997년도 인제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장려금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신증후군 환자 어머니의 교육요구도와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중요도를 조사함으로써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1. 신증후군 환자 어머니의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2. 신증후군 환자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파악한다.
3. 신증후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한다.
4. 신증후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교육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한다.
5. 신증후군 환자 어머니의 교육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 요구 : 새로운 상황과, 질병의 경과에 대처하고 미래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환자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긴장에 적응할 방법을 알고자 하는 요구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백승남 등(1997)이 개발한 신증후군 환자어머니의 교육요구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 높음을 의미한다.
- 2) 교육활동의 중요도 : 간호사가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할 교육내용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백승남 등(1997)이 개발한 신증후군 환자어머니의 교육요구도 측정문항으로 중요성의 인지도를 측정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신증후군 환자의 특성 및 환자 부모의 교육요구

소아 신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성인 신증후군보다 치료에 대한 반응 및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 관해가 일어난 후 스테로이드를 감량하거나 중단할 시, 재발율이 성인의 경우 25%, 소아의 경우 39-55%에 이르고 있어(김영수 등, 1993)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alomares등(1991)은 암환아와 당뇨병 환아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만성환아들에게 병리적 상태는 아니

지만 우울과 불만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였으며, 그들은 입원할때 자신이 죽게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의기소침해 질 수 있다(Hobbs, Perrin & Ireys, 1985). 이현성(1983)은 신체적 기능장애가 있을 때는 활동의 제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정서적으로 변화가 많이 되어 언제나 불안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으며, 그들은 급성질환이 아니면서도 완전하게 건강한 것도 아니어서 겁내고 화내며 포악해지기도 한다(Popper, 1984). Austin(1990)은 만성적 신체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서적 문제의 발생은 그의 부모들이 자녀의 만성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환아는 거부되거나, 과잉 보호될 수 있다(Cirillo & Sorrentino, 1986).

Perrin(1991)은 만성 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이 만족스러운 자율감의 발달이 어렵고 그들의 질병이 그들의 정체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질병이 없는 청소년과 같이 자율감의 발달과 개인적 정체감의 형성을 위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성질환 청소년의 욕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만성질환 청소년이 정상 청소년보다 남자의 경우 성취, 공격, 지배, 성, 그리고 자율의 욕구가 낮았는데, 성취의 욕구가 낮은 것이 학습성취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어렸을 때의 지나친 의존으로 만성질환 청소년이 독립심을 갖거나 자아확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신희선, 1982).

만성질환에 걸리면 질병과 신체 기능적인 제한, 또래들이나 부모의 반응때문에 또래들과 같은 나이에 적합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제외되는 수가 많다(강창희, 1992).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아의 부모들은 일상적인 일 등 여러가지 일에 혼란이 초래된 경우가 많으며 슬픔, 죄책감,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그들의 자녀가 이상적인 건강한 어린이로 될 수 없거나 혹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비탄과 슬픔을 느낀다(Marrow & Redding, 1988).

Sylvia(1971)는 장애아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반응이 각 개인의 성품, 결혼 만족도, 사회적 지위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나 죄의식, 양면감정, 절망, 좌절감, 분노, 수치감, 슬픔은 누구나 갖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죄의식은 적대감과 거부등 파괴적인 느낌으로 자녀가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으며, 출산 전의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을 느끼며, 종교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문제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벌로 여길 수 있다고 하였다(류정혁, 1990).

만성질환이라 하여도 질병의 상태와 치료 이행 및 예후에 따라서 만성 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는 다르다(Austin, McBride & Davis, 1984). 어머니들은 끝없이 싫증나는 간호의 지속과 자녀의 불능상태를 대신해 주거나 도와 주어야 하므로 부담이 크고 때로는 자기의 경력이나 직장도 포기하며 그 자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특히 가족기능이 불완전할 때나 남편이 표면적으로 환자의 돌봄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면 어머니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Futcher, 1988).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고를 하여도 자녀를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또 다른 임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건강한 다른 자녀를 갖을 수 있을까 등으로 결혼생활의 만족에 장애를 줄 수 있다.

Gagton(1977)의 연구에서도 만성질환아는 그들에 위기 효과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을 돌보는 어머니와 가족체제의 역동에 변화를 일으켜 가족체제에 충격을 주며 특히 어머니는 죄책감과 심리적 압박감 및 정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다고 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만성질환아는 그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와 그 현재 자매들 전체 가족 기능에 주는 위협이 크다. 그러나 만성질환아 가족들이 이러한 위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상순, 1993)고 했다.

2. 신증후군 환아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수행

간호사가 시행하는 교육은 전인간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Dugas(1977)는 간호사의 직분을 보호적 측면, 치료적 측면, 예방적 측면, 협동적 측면 및 환자대변자로 나누었다.

현대간호에서는 간호사들이 간호 대상자가 자가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책임감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Winslow, 1976).

임상 간호사들이 실제로 간호 대상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르친다는 의식도 없이 계획성 없는 내용을 무의식중에 해 왔으므로 간호 대상자 교육에 관한 개념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간호사는 좀 더 계획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간호 대상자 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Pohl(1965)은 일찍이 환자 교육은 특별히 준비된 것으로서 체계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합해져야 한다고 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간호사가 자가간호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일차적인 중재, 즉 대상자 교육은 간호 전문직의 중요한 독립적 기능이며(Oberst, 1989), 대상자 교육과정은 간

호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간호사는 대상자가 원하는 정보가 비록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Gessner, 1989). 그러나 일방적인 정보제공은 지식은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지식이 이행을 증가시키는데는 상관성이 낮으며(Dracup, 1982), 당뇨 지식이 많은 사람에서 오히려 당뇨조절이 더 안되고 응급상태가 많다는 역설적인 보고(Kasl, 1974)도 있어 일방향적인 지식전달 하나만으로는 행동유발 까지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데 있어서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가 원하는 교육요구와 간호사가 인식한 교육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식한 교육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 2개 대학병원과 부산 광역시내 1개 대학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신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중인 환아 어머니로 자녀의 질병에 대해 알고 있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어머니 60명과 이를 돌보는 간호사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간호사 63명이었으며 임의 표출을 하였다.

3. 연구도구

1)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백승남 등(1997)이 개발한 신증후군 환아어머니의 교육요구 측정 도구를 이용, Likert식 5점 평점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매우 알기 원한다”에 4점, “알고 싶지 않다”에 0점을 주었으며 총 4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98$ 이었다.

2) 간호사의 교육활동 중요도

본 연구에서는 백승남 등(1997)이 개발한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 측정문항과 같은 항목으로 간호사의 교육활동 중요성의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에 4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0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94$ 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자료수집은 작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환아 어머니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7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 총 65명중 무응답 및 불완전한 응답을 한 5명을 제외한 60명의 대상자로 부터 자료를 얻어 분석하였다. 2차적으로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1997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질문지를 이용하여 63명의 간호사가 인식하는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에 대한 교육활동의 중요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교육요구 및 교육의 중요도는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순위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4)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와 간호사의 교육의 중요도는 t-test로 분석 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시내 2개 종합병원과 부산광역시내 1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신증후군 환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에 관한 특

성으로 환아의 관련된 특성과 환아 어머니의 특성을 조사 하였으며, 간호사의 경우 일반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을 조사하였다.

환아의 연령분포는 평균 연령이 7.7세로 연령 분포는 고루 분포되었으며, 환아의 성별은 남아 41명(68.3%), 여아 19명(31.7%)이었다. 환아의 진단명은 미세변화 신증후군이 47명(7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 이후 경과기간은 1-12개월이 32명(53.3%)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방법은 스테로이드 경구요법과 주사요법 병행이 34명(56.8%)로 가장 많았으며, 스테로이드 경구요법만 하는 경우는 22명으로 36.7%이었으며, 스테로이드 주사요법만 하는 경우는 4명(6.7%)로 나타났다.

환아의 75%가 1회 이상의 재발 경험이 있으며,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정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47명(78.3%)로 가장 많았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환아 이외의 다른 자녀수, 직업, 종교등이 제시 되었다. 연령분포는 31세에서 40세 까지가 35명(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7.4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6명(60.0%)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중일 경우가 50명(83.3%)로 비교적 안정된 경제상태를 나타 내었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43명(7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가정주부가 38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가 각각 22명

<표 1>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특성 (N=63)

특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연령(세)	24 이하	8	12.7
	25-29	35	55.6
	30-34	13	20.6
	35 이상	7	11.1
결혼상태	기 혼	44	69.8
	미 혼	19	30.2
최종학력	전문대졸	48	76.2
	대 졸	12	19.0
	대학원졸	3	4.8
임상경력	1년 미만	8	12.7
	1년-3년 미만	15	23.8
	3년-6년 미만	18	28.6
	6년 이상	22	34.9
종 교	불 교	5	7.9
	기독교	20	31.7
	천주교	12	19.0
	없 음	26	41.3

(36.7%)이었으며, 천주교와 불교가 각각 8명(13.3)이었다.

간호사의 경우에 연령은 15에서 29세가 35명(55.6%)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이 44명으로 69.8%를 차지하였으며, 최종학력으로는 전문대졸이 48명(76.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임상경력과 종교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1 참조>.

2.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 요구도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각 항목별 교육요구는 <표 9>와 같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들은 퇴원 후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평균 3.50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이 평균 3.48이며, 입원 중 간호는 평균 2.97로 가장 낮았다.

<표 2>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 요구

영역	평균±표준편차
질병의 진단 및 치료	3.48±0.33
입원 중 간호	2.97±0.37
퇴원 후 가정간호	3.50±0.44
교육요구(전체)	3.24±0.31

3.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신증후군 환아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에서 환아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으며,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는 <표 3>와 같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특성 중 교육요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으로는 교육정도(F=4.68, p=.0025), 경제상태(t=-3.25, p=.0038), 자녀수(F=3.42, p=.0234), 직업(F=4.98, p=.0039)들이었다 <표 3 참조>.

4.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중요도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4>과 같다.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표 3>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N=60)

특성 구분	수(n)	교육요구 평균±표준편차	t 또는 F값	p값
연령(세)	30 이하	18	143.00±14.82	F=0.21 .8127
	31-40	35	143.00±13.31	
	41 이상	7	139.42±13.12	
교육수준	국졸	2	149.00±0.00	F=4.68 .0025*
	중졸	6	129.50±13.95	
	고졸	36	147.33±11.85	
	대졸	14	134.85±13.07	
	대학원 이상	2	144.00±0.00	
경제상태	중	50	140.22±12.77	t=-3.25 .0038*
	하	10	154.40±11.55	
자녀수(명)	1	12	148.83±8.53	F=3.42 .0234*
	2	43	134.40±9.03	
	3	4	147.02±13.05	
	4	1	112.00	
	4 이상	1	112.00	
직업	회사, 사무직	8	138.50±9.57	F=4.98 .0039*
	사업, 상업	10	134.40±9.03	
	가정주부	38	147.021±3.05	
	기타	4	129.00±17.32	
종교	불교	8	138.00±8.84	F=0.54 .6554
	기독교	22	142.36±11.35	
	천주교	8	141.25±21.34	
	없음	22	144.95±14.01	

중요도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이 평균 3.20으로 가장 높았고, 퇴원 후 가정간호에 대한 내용은 평균 3.15이었으며, 입원 중 간호에 대한 내용은 평균 3.08로 환아 어머니에서와 같이 가장 낮았다.

<표 4>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중요도

영역	평균±표준편차
질병의 진단 및 치료	3.20±0.39
입원 중 간호	3.08±0.42
퇴원 후 가정간호	3.15±0.47
교육요구(전체)	3.14±0.38

5.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교육활동에 대한 중요도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교육

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표 5>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없었다.

<표 5>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교육활동에 대한 중요도

특성 구분	수(n)	교육활동에 대한 중요도		t 또는 F값	p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세)	24 이하	8	139.12±10.38	F=.198	.8972
	25-29	35	137.05±19.67		
	30-34	13	137.76±9.28		
	35 이상	7	142.28±18.04		
결혼상태	기혼	44	138.61±18.69	t=.051	.616
	미혼	19	136.73±10.56		
최종학력	전문대졸	48	137.85±16.92	F=.119	.8879
	대졸	12	137.66±14.77		
	대학원졸	3	147.66±24.00		
임상경력	1년 미만	8	140.26±11.79	F=.796	.5006
	1년-3년미만	15	132.26±22.63		
	3년-6년미만	18	139.50±16.23		
	6년 이상	22	139.86±13.42		
종교	불교	5	123.00±8.97	F=2.26	.0906
	기독교	20	135.45±12.29		
	천주교	12	139.41±13.55		
	없음	26	142.30±20.09		

6.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의 중요도 비교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의 중요도를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점수를 비교해보면,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가 간호사의 교육활동 중요도보다 다소 높기는 하나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역별 비교에서 환아 어머니와 간호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t=4.28, p=.000)과 퇴원 후 가정간호에 대한 내용(t=4.24, p=.000)이었다.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과 퇴원 후 가정간호에 대한 내용들은 환아 어머니들의 교육요구가 간호사의 교육활동 중요도보다 높았으나, 입원 중의 간호에 대한 내용은 환아 어머니들의 교육요구도보다 간호사의 교육활동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의 중요도 비교(영역별)

영역	비교군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질병의 진단 및 치료	환아 어머니	3.48±0.33	4.28	.000*
	간호사	3.20±0.39		
입원 중 간호	환아 어머니	2.97±0.37	-1.58	.116
	간호사	3.08±0.42		
퇴원 후 가정간호	환아 어머니	3.50±0.44	4.24	.000*
	간호사	3.15±0.47		
교육요구(전체)	환아 어머니	3.24±0.31	1.64	.101
	간호사	3.14±0.38		

V. 논 의

대상자를 교육함에 있어 이들의 요구를 파악함과 동시에 대상자와 간호사의 교육요구에 대한 지각이 일치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대상자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적 요구가 간호사가 생각하는 교육적 요구와 다를 수 있고,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었다 해도 대상자가 그중의 일부를 왜곡하게 받아들이거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남, 1989; Powell & Winspaw, 1973).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도는 최대 평점 176점에 대해 '알기 원한다'인 132점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82.53%로 높게 나타나, 암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요구도를 측정 한 연구결과들(김, 1988; 남, 1989; 한, 1994)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증후군이나 암환아들이 모두 만성질환으로 부모 특히 그들을 주로 돌보는 어머니들이 환아 간호의 전반적인 책임을 느끼는 위치에서 이와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세 영역의 교육항목을 우선순위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 그 중 7가지 항목이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련된 것들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영역에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의 중요도를 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0개 문항중 5개 문항이 입원중 간호영역으로 나타나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들이 원하는 교육영역과 실제로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중요도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상자는 환아의 연령이 낮고 만성질환이므로 간호의 비독자적인 업무인 질병의 진단 및 치료영역에 대해 많은 교육요구를 하였으며, 이를 돌보는 간호사는 비독자적인 업무보다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인 입원중 간호영역에 더 많은 비

중을 둔 것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조, 1991; 김, 1993; Linde & Jnnz, 1979; Dodd, 1984; Gallo et al., 1991), 환아가 아동인 경우 그들 부모에게 행해지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지만 (Mutter, Markello & Yaffe, 1975; Brandt & Magyary, 1993), 신중후군 환아를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정보적 요구는 무엇이며, 이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백, 1994).

본 연구의 신중후군 환아어머니의 교육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의 중요도를 비교해보면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가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중요도보다 높아 선행연구들 (김, 1989; 남, 1989; Winslow, 1976; Magill, Williams & Caspi, 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환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이 알고자 원하는 교육요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교육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의 중요도에 대한 많은 차이는 이에 대한 연구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정보제공과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간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교육요구도를 보면 가장 높은 교육요구도를 보인 영역은 가정에서의 간호영역으로 평균 3.50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의 중요도를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영역으로 평균 3.20으로 나타나 대상자인 환아 어머니가 원하는 교육 내용과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질병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환아에 대해서 과보호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Garson, Williams & Reckless, 1974), 부모가 환경과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신이 아이의 caretaker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다 (Vinsintainer & Wolfer, 1975)는 측면에서 임상에서 환아 부모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교육요구와의 관계에서 환자 성별에 따른 교육요구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암환아를 대상으로 한 한 (1994)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속적

인 연구를 필요로 하며,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아 어머니의 경제상태, 교육정도, 환아 이외의 자녀수, 직업등으로 대상자 교육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특히 교육수준이 아주 낮은 경우는 교육요구도도 낮아 간호사들은 교육을 제공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간호 대상자들이 원하는 교육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의 중요도간에는 판이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 부족은 물론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과대한 업무량 때문인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중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 및 간호사가 인식한 교육활동의 중요도를 조사한 서술연구이다.

서울시내 2개 대학병원과 부산시내 1개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에 신중후군으로 입원한 환아 어머니 60명과 이를 돌보는 간호사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간호사 63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7년 3월 부터 1997년 7월까지로 대상자 기준에 의해 임의 표출하였다. 두구는 연구자가 문헌고찰 및 임상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Likert 식 5점 평정척도의 질문지를 이용, 자료수집 하였다.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alpha = .97$ 였다.

수집된 자료를 SAS를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교육요구와 교육의 중요도는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순위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요구와 교육의 중요도는 t-test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중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는 퇴원후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평균 3.50으로 가장 높았다.
2. 신중후군 환아 어머니의 특성중 교육정도 ($F=4.68, p=.0025$), 경제상태 ($t=-3.25, p=.0038$), 자녀수 ($F=3.42, p=.0234$), 직업 ($F=4.98, p=.0039$) 등이 교육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신중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

이 평균 3.20으로 가장 높았다.

4.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교육 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요구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교육활동의 중요도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영역과 퇴원후 가정간호에 관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사들이 신증후군 환아 및 그들 부모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적극 이용하도록 제안한다.
2.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본 연구의 도구를 이용 반복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수, 이준상, 김성일, 김무영, 양용석, 황병욱, 박임수 및 나하연(1993). 성인의 미세변화 신증후군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신장학회지, 12(4).
- 강창희(1986). 신증후군 청소년의 간호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채원(1986). 신증후군 환아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창희(1992). 신증후군 청소년의 간호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4), 604-619.
- 고재성(1993). 조기(2세 미만)에 발병한 신증후군. 소아과학회지, 36(10), 1395-1400.
- 김희숙(1991). 소아 신질환의 종류. 대한간호, 30(1), 22-27.
- 류정혁(1990). 뇌성마비 아동의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오장, 홍미순, 소향숙 및 장금성(1987). 당뇨병교육이 당뇨병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19(2), 281-287.
- 박주봉(1978). 산모와 간호원이 본 선택된 산욕기 간호활동의 중요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8(1).
- 박은숙(1993). 천식아동 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희선(1982).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욕구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영(1992).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불안,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권(1990). 지역사회의학: 가족과 질병 2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73-82.
- 조병수(1993). 소아신질환. 대학의학협회지, 36(8), 960-966.
- 장효순(1982). 만성질환이 자아개념과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천식환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순(1993). 만성질환 아동과 가족의 반응과 대응. 결핵간호논문집, 18(1), 1-21.
- 홍경자(1990). 아동간호학. 수문사, 1076-1081.
- 홍창의(1980). 소아과학.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425-440.
- 홍창의(1994). 소아과학.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71.
- Austin, J.K., McBride, A.B. & Davis, H.W. (1984). Parental attitude and adjustment to childhood epilepsy. Nursing Research, 33(2), 92-96.
- Austin, J.K. (1990). Assessment of coping mechanism used by parents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M.C.N. 15, 98-102.
- Cadman, D., Boyle, M., Szatmari, P., & Offord, D. R. (1987). Chronic illness, disability and mental and social well-being: Finding of Ontario child health study. Pediatrics, 79, 805-813.
- Cirillo, S., & Sorrentino, A.M. (1986). Handicap & rehabilitation: Two types of information upsetting family organization. Family.
- Coggins C.H. (1981). Minimal change nephrosis in adults, in proced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Nephrology, edited by Zurukzoglu W, Basel Karger, 336-344.
- Davis Linda L. & Grant Joan S. (1994). Constructing the reality of recovery: Family home care management strategies. Adv. Nurs Sci, 17(2), 66-76.
- Dracup, K.A. (1982). Compliance: an Interactionist Approach, NR, 31(1), 31-35.
- Gessner, B.A. (1989). Adult Education: The cornerstone of patient teaching.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4(3), 589-595.
- Glasscock R.J., Cohen A.H., Benett C.M. &

Maldonado M.M.(1981). Primary glomerular Disease. In the kidney 2nd ed., vol II, 1419-1427.

King & Gregor(1985).

Lilly(1990).

Oberst, M.T., Thomas S.E., Gass, K.A. & Ward, S. E.(1989). Caregiving demands and appraisal of stress among family caregivers. Cancer nursing, 12(4), 209-215.

Williams Robert, Boyce W. Thomas & Wright Anne L.(1993).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ucture and Perceived Family structure and Perceived Family support to lence of Hospital study. Family Practice Research Journal, 13(2), 185-193.

- Abstract -

Key concept : Nephrotic syndrome, Educational needs, Educational activity

The Educational Needs of Mothers of Nephrotic Syndrome Patients and the Degree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Activity Perceived by Nurses

Sung, Mi Hae* · Jung, Yun**

This is descriptive study conducted to identify educational needs of mothers of nephrotic syndrome patients and the degree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activity perceived by nurses who look after nephrotic syndrome patients.

The study subjects were composed of 60 mothers & 63 nurses of nephrotic syndrome patients whose children were hospitalized in 2 Pediatric wards of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nd 1 in Pusan from Mar. in 1997 to July 1997. A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was item Kikert type 5 point scale, developed on the basis of previous literature and researcher's clinical experience and the reliability of the used instruments was $\alpha=.97$.

The data analysis was done by SAS. t-test, and ANOVA were done to determine the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n their educational needs. T-test was done to measure relations between the degree of educational needs and importance of educational activ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Educational needs of mothers ranked as the highest in home care.
2. In character of mothers, the degree of education, economic state, the number of child and occupation was significant in statistically.
3.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activity of nurses ranked the highest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disease.
4. The educational needs of nephrotic syn. children' mother and importance of nurses were different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disease and home car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suggest as follows.

1. It is proposed that nurses use these results of the study actively for the educational program for Nephrotic Syndrome patients and their mothers.
2. It is suggested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gree of nurses'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n educational items with the instruments of this study.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 - Je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